



내게 이런 친구가 있다. 이름은 일단 G라고 해두자. G는 한국 사람일 수도, 외국 사람일 수도 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겠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않겠다. 솔직히 나도 그 친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기본적인 인적 정보 같은 것으로 그를 지레짐작하게끔 만들고 싶지도 않다. 친구라고 했지만, 어쩌면 나는 그에 대해 아는 게 전무할지도 모른다. 그저 내 느낌만 빌려 말하자면, 그리고 그가 곧잘 하는 얘기들을 참조하자면, 그가 아마도 사립 탐정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을 따름이다. 탐정이라니. 우리나라에선 탐정이란 직업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범죄 수사는 전적으로 국가 공인 수사기관의 몫이고 사적인 원한이나 이해관계와 얽힌 개인적 탐문 행위는 고작해야 흥신소에 의뢰할 수 있을 뿐, 설록 홈스나 필립 말로우 같은 멋쟁이 사립 탐정을 기대하기엔 현실에서든 픽션에서든 어려운 형편이다. 그럼에도 나는 G가 탐정일 거라고 믿는다. 이러한 단정은 당연히 그가 하는 일이나 그의 존재 자체가 허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만 명백하게 반증할 따름이지만, 나는 그게 외려 더 그를 잘 드러낸다고 여기는 편이다. 그가 실제로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그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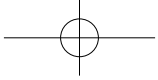
립 탐정이든 연쇄살인마든 실패한 야구 선수든, 어쨌거나 그는 존재한다. 아니, 내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상한 역설인가. 스스로 답을 내놓진 않겠다. 어쩌면 나는 이러한 점이 문학의 한 속성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른다.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순간, 때로 나 자신이 시와는 완전 무관한 사람이 되곤 하니까.

G는 나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 우리는 주로 저녁 산책길에서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 시시콜콜한 일상사를 주고받은 적은 거의 없다. G는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주변 풍경들을 스케치하는 걸 즐긴다. 골목의 생김새나 건물의 모양, 가로수들이 도열한 모습이나 달리는 자동차들의 윤곽 따위를 스케치하는 게 그의 취미라면 취미다. G의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G가 그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G는 내게 이렇게 말한 적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이 골목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림이 숨어 있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매번 다른 자동차가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야.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인식 자체의 허위와 기만에 대해 얘기하는 걸세. 자네는 자네의 집에 있는 사물들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면서 G는 내게 한 이층집 창문을 가리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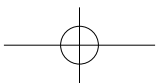
“만약 자네가 저 창문을 통해 방을 들여다본다고 치세. 거기엔 흔히 있을 수 있는 물건들,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 방은 저기 살고 있는 사람의 습관의 성체일 것이네. 그러니 자네가 바라보는 공간과 저 방의 주인이 바라보는 공간은 똑같으면서도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공간이 되는 것이지. 자네는 자네만의 눈으로 보고 주인은 그만의 시각으로 판



단할 테니. 일상화되고 습관이 돼버린 공간은 언뜻 보아 그 어떤 비밀도 존재하지 않는다네. 공간과 정황이 낮설지 않다면 과연 세상에 어떤 비밀이 존재할 수 있겠나. 비밀과 신비가 없는 세상은 연인이 없는 세상보다 더 외롭고 공허하다네. 내가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기억을 버리기 위해서라네. 버리고 새롭게 그려 내기 위해서지. 스케치를 할 때마다 이 거리와 풍경들은 내가 처음 겪게 되는 장소로 변화한다네. 자네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나. 익숙했던 공간이나 사물이 들여다볼 때마다 얼마나 새로운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알게 될 테니 말일세. 시도 그렇지 않던가? 사물을 원래 모습 자체로 되돌리게 될 때야 비로소 다른 이름이 생기곤 하지 않나.”

G는 늘 정확한 시각, 그러니까 오후 네 시에서 여섯 시 사이에 평방 2킬로미터 정도의 동네를 천천히 배회한다. 만약 당신이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살고, 어디를 자주 왔다 가는 지 아는 사람이라면, 스케치북을 든 약간 허청허청한 걸음걸이의 갈색 머리 남자(나이는 서른 중반에서 쉰 중반까지도 아우르는 인상이다)를 마주치게 된다면 한번 유심히 살펴보기 바란다. 어쩌면 그가 G일지도 모른다. 아니, 그 이전에 G가 먼저 당신을 발견하고 스케치북 속에 작은 얼룩으로 당신을 새겨놓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G의 말을 듣고 나도 얼마 전 스케치북을 장만했다. 그림 솜씨가 뛰어나진 않지만, 몇 번쯤 연필을 들고 휘적휘적 보이는 대로 선을 그어댔더니 흰 종이 위에 그 나름 질감이 두터운 어떤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다. 눈에 보이는 건물, 자동차, 사람들의 모습이 스케치북 안에서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그중, 눈에 잡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본다. 며칠 전, 집 앞을 서성대는 한 남자의 모습을 스케치한 것인데, 가만히 보니 그게 G를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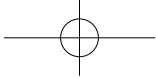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골목 귀퉁이에 버려진 전신 거울 속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 그게 G를 떠올리게 했던 것이다. 사실을 말하건대, 나는 스케치북을 장만한 이후론 G를 만난 적이 없다. G는 언제 내 스케치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걸까.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G의 그림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건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된다. G는 과연 누구일까.

언젠가 G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

“살인 사건의 가장 확실한 목격자는 피해 당사자지. 이 당연한 사실이 모든 추리를 공백으로 만든다네. 죽은 자의 눈과 입을 빌리는 일이라는 점에서 탐정은 일종의 무당과도 같다고 할 수 있지.” 그러면서 G가 덧붙였다. “나는 수사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네. 내 대뇌에는 사유의 굳은살로 만들어진 삭제 버튼이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시감 때문에 많은 일을 망치게 되니까. 공간과 정황이 낯설어지지 않는다면 수상한 점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라네. 나는 범률이나 도덕, 또는 정의라 불리는 일방적이고도 특정한 집단의 모토를 위해 일하지 않아. 어떤 방식의 악을 변호하(는 척하)고 그것이 악이라 불리게 된 사실 여부의 부당성과 부득이함을 증명함으로써 세상의 커다란 허위가 어떻게 한 인간을 전락게 하는지를 실험할 뿐이지. 나는 죄의 소비자일 뿐, 벌하는 자가 아니라네. 만약 내게 총이 있다면 어떤 이를 범인이라고 확정하기 직전, 총구를 입에 물곤 방아쇠를 당기게 될 것 같군.”

늦은 오후, 스케치북을 들고 거리로 나온다. 집 바로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집 쪽으로 시선을 던진다. 그리고 그걸 그리기 시작한다. 붉은색 벽돌 건물 입구. 내가 사는 집이다. 다시 시선을 내린다. 건물 현관에서 한 남자가 스케치북을 들고 걸어 나온다. 그도 역시 스케치북에 그려 놓는다. 누구인지 알 것 같기도,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



만, 나는 그를 오래전부터 G라 불렀던 것 같다. 그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G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이런 내용이었다.

“어떤 치열한 모방은, 모방하고자 하는 대상을 끝끝내 거부하며, 그럼에도 그 대상의 환영에 끝없이 시달림으로써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어떤 치부와 맹목을 스스로없이 발견해내는 것으로 완성되곤 한다네. 모방되는 대상은 그저 누구에게나 뚫려 있는 구멍을 은폐하려는 궁극의 거짓말, 밑 빠진 독에 부어지는 물의 파편에 불과하지.”

늦여름 장대비 속, 대기가 오래 뿌옇다. 감사드린다.